



[산업] 2019 업종전망 전자가 희망이다 05



Economy

| | | | | | |
|------------|---|------------------|-----------|---|-----------------------|
| 코스피 | ↑ | 2082.57 (+29.60) | 코스닥 | ↑ | 676.48 (+15.47) |
| 금리 (미국 3년) | ↑ | 1.80 (+0.01) | 환율 (원/달러) | ↓ | 1128.50 (-1.60) (12일) |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로... 50대 CEO 전진배치

대규모 사장단 인사

현대건설 부회장에 정진행
현대모비스 사장에 박정국



승진해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보임됐다.

또 박정국 현대케피코 사장이 현대모비스 사장에,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로템 부회장에, 이건용 현대글로비스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을 현대로템 부사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현대·기아차 기획조정2실장 여수동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 법인 사장으로 발령났다.

신임 현대오트론 대표이사에는 문대홍 현대파워텍 사장이, 신임 현대케피코대표이사는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장 방창섭 부사장이,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R&D) 육성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는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장 이기상 전무가 각각 내정됐다.

현대케피코탈코퍼레이트 센터부문장 황유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기아차 차량성능담당 알

버트 비어만 사장은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현대오트론 조성환 부사장은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 업체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 등 핵심과제 수행과 전략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 생산개

발본부장 서보신 부사장을 생산품질담당 사장으로, 홍보실장 공영운 부사장은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한편 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양웅철 부회장, 연구개발본부장 권문식 부회장, 생산품질담당 여승동 사장, 현대모비스 임영득 사장, 현대다이모스 조원장 사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현대로템 김승탁 사장 등은 고문에 위촉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전무는 자문에 위촉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12일 현대·기아차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인사에서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 그룹의 전략기획 부문을 총괄했던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옮기고, 정진행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부회장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계절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된 12일 오전 두꺼운 복장을 한 외국인들이 서울 남산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수 늘었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대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취업자 전년비 16.5만명 ↑
실업자는 91만명 달해

올 11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를 기록해 아직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8.2%), 정보통신업(8만

7000명, 11.2%), 농림어업(8만4000명, 6.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9만1000명(2.0%) 줄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9만1000명(6.6%), 6만9000명(1.8%)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줄었고,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3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11만6000명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2만1000명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률은 20대(-1.3%p)가 소폭 하락했고 40대(0.4%p), 50대(0.6%p), 60세 이상(0.4%p)은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p 하락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변화보다 안정'... 삼성전자, 조직개편 최소화



네트워크사업부 수장 교체
5G 상용화 맞춰 성과 확대

삼성전자가 2019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실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5G 전문가를 중용하는 조치만 취했다.

12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2019년 조직개편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대부분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부문에 3개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 수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인력 배치만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은 최근 SK텔레콤과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바 있다. /SK텔레콤

도와 같이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는 전경훈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김영기 사장은 고문으로 자리를 물러났다.

이번 조치는 5G 장비 시장에 더 힘을 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부사장은 포스텍 교수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5G 관련 기술 연구를 주도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선데이터 전송기술을

개발하고, 5G 표준화 작업에도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5G 장비 시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기술 개발에 2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최근에는 SK텔레콤과 협력해 단독규격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등 세계최초 5G 상용화에도 힘을 실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시장 점

유율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11% 점유율로 4위에 머물러있다. 아직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능으로는 에릭슨 등 우수 업체들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다.

김영기 사장은 오랜 기간 자리를 맡아왔던 만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2010년 처음 네트워크사업부장을 맡아 8년여간 사업을 이끌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경훈 부사장을 네트워크 사업부장으로 임명한 외에는 변화가 없어서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세부적인 인력이 동이 있었지만 조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용기자 juk@

